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

강석훈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6년이였다.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부결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 처음 들었다. 그리고 참 많이 의아해했던 기억이 있다. 성인이라면 아무 조건없이 3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거저 주겠다는데 정작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그 나라가 매우 부러웠다. 그리고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들 살고 있기에 우리네 한 달 월급 정도에 해당하는 돈(*나는 그 정도의 월급으로 살아간다)을 거저 주겠다는데도 그걸 싫다고 한 것일까 매우 궁금했다.

그들의 속사정을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크게 관심도 없다. 그저 매월 3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으로 부러움 한켠에 씩씩함이 크게 남아있을 뿐이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모두들 느끼셨을 테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왜 어느 누구는 월 300만 원이 굳이 필요치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지구라는 공간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 철학적 이야기가 아니다. 굳이 천체물리학자들의 연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주를 여행해본 우주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다.)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는 단돈 천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일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선진국의 부유한 동네에 태어난 이들, 태어날 때부터 금손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난다는 이들은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것일까? 단돈 천 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다는 비선진국의 아이들과 여인들,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쟁에 이리저리 내몰리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수많은 난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세상이 공평할 것이라는, 삶이 공평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니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헛소리인 것인가? 원래 삶은 불공평한 것이니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그러니 다음 생을 기약하자고, 죽음 이후 멋진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잘 견뎌보라고 이야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Just do it!!!!” 하면 되니까 그냥 해보라고, 빈사에 허덕이는 비선진국의 그 어린아이에게 지금 니가 안되는 이유는 안해서 그런 것이니 너의 가난은 너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일까?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한 공간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

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의 무대를 좀 좁혀보자. 우리네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은 어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경제 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나라, 머지않은 과거의 찢어질 듯했던 가난을 단시간에 극복했다는 자랑스러운 나라,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서구의 선진국들과 함께 메달 경쟁을 벌이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오스카상을 타고 그래미상을 넘보는 나라, K방역이라 불리며 전세계를 휩쓴 바이러스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끝인가? 정말 그곳이 대한민국인가?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최고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63억 2천만 원이며,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발표를 오늘 뉴스를 통해 보았다.)가 즐비한 그 자랑스러운 나라의 어떤 반지하 공간에 아직도 4~5인, 5~6인 가족이 등을 맞대고 살아간다면 믿으실 수 있는가? 그곳 어딘가에서 다음 한 달을 살아낼 생활비가 없어서, 아니 더 이상은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서 세 명의 목숨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신가? 더구나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밤새도록 물건을 배달하며, 투잡에 쓰리잡을 뛰어도 아름다운 서울 한켠에 집 한 채, 방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는 나라, 아니 그 투잡에 쓰리잡마저도 있으면 좋겠다는 아우성이 넘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믿어지시는가?

나는 그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20대, 아니 10대에도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겠다고 지정한 택지지구에 20, 30대 땅 주인들이 넘쳐난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가난한 이들은 무언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다”라고 외쳤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의 말처럼 무언가 인격적 결함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니 조금이라도 사회적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일 게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가가, 사회가 가난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할 턱이 없지를 않은가 말이다. 지금 한창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이라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해보자. 현재 유력한 한 서울시장 후보는 이미 서울시장을 지낸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줄 수 없노라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아마도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주는 행위는 인격적 훌륭함으로 자신의 부를 일구어간 많은 이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행하는 일이라고 판단했었던가 보다. 아무튼 그는 그랬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다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 있다.

과연 그런가? 정말로 가난은 인격의 결함이며, 불성실의 결과이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40여 년이 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며 최악의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의 가난은 사회구조가 유발하고 있다.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빈과 부의 차이는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해도 물가상승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난은 대물림이 되고 동시에 부도 대물림이 되고 있다. 어찌 가난이 인격적 결함일 수 있겠는가.

2008년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사상가 10인’에 선정된 말콤 글래드웰(Malcom Gladwell)은 “인류 역사상 비범한 성공을 거둔 이들의 공통된 비결은 운이었다.”라고 단언했

다 한다. 그에 따르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운이다. 부자들의 대부분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모든 부가 그렇지는 않다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해도 가난을 인격적 결함으로 규정짓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한 사회가 창출해 내는 부는 오롯이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에 부가 창출되는 것이니 경제적 선구안을 지닌 한 훌륭한 위인의 소유만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당연히 재분배되어야 한다. 정의롭고 공평하게 말이다. 자본주의에 바탕한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노동에 의해 사회가 생산하는 부를 분배해왔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하며 정의롭게 진행되었다는 신화에 빠져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것은 신화일 뿐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일자리는 늘 불안정했고, 그 일자리의 불안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본은 그 축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자본과 노동은 더 이상 대등한 롤로 경기할 수 없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자본은 노동에게 치열한 경쟁을 강요했고, 그 경쟁은 인간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강요된 노동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이제 노동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상실했다.

어느날 예수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나라를 설명하시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떤 포도농장의 주인이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얻기 위해 아침 일찍 인력시장이란 곳을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정하고 일을 맡겼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은 조금 후에 다시 나가 또 다른 일꾼들을 부르며 자신의 농장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 (*성서는 주인이 다시 일꾼들을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니 일감이 많아서라든지 일꾼이 부족해서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리고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농장의 주인은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해가 질 무렵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묻는다.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고 있소?’ 그들의 대답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자신의 농장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한다. 품삯을 주겠노라고 말이다. 자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되었다. 가장 마지막에 온 이들부터 품삯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지막에 들어와 한 시간 남짓 일한 이들에게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이에게도 주인은 똑같은 품삯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불공평한 일인가? 더구나 이것이 하나님나라를 비유한 설명이라니 말이 되는가 말이다.

자! 흥분하지 말고 주인과 마지막으로 계약한 노동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자. 우리는 주인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이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성서는 여기에서도 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유추해본다면 그들은 앞선 일꾼들보다 힘이 약했을 수 있다. 덩치가 작았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여성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서는, 농장의 주인은(나는 아무래도 이 농장 주인이 하나님 같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힘이 약한 이도, 덩치가 작은 이도, 여성도, 장애인도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그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삶을 위하여 수입이 필요한 존재라면 그는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수입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고용이란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현실 세계에 서 어떤 주인이 해가 질 무렵 일자리를 주겠는가? 이것은 가난한 이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적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자. 남들보다 더 센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온전한 자신의 인격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감사의 선물인가? 남들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기만 한 걸까? 아니면 하늘이 준 행운인 걸까? 더하여 금손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말해 무엇할까? 그러니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같은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실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는 수단으로 여겨졌던 노동시장이 왜곡되어 있다. 한동안 노동의 가치는 지고지순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람을 쓸모로 계량하고, 그 쓸모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치환하여 계산하는 사회체계 속에서 더 이상 노동은 인간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지고지순한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올바른 부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필수적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그 노동의 중요함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K방역 또한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노동의 쓸모가, 사람의 쓸모가 정해지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그 노동의 쓸모를 계량하고 가격을 매기는 것일까? 아니 정말 이 사회는 그 노동의 쓸모에 따라 가격을 매기기는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의 공포 속에서 이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사회를 새로이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지구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가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보완하여 노동을 지켜온 생계의 수단에서 해방하여 말 그대로 자신을 실현하는 가치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적 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기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는 소비주의 사회의 멋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도 이곳저곳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기본소득의 도입을 찬성해온 사람으로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걱정되는 지점 또한 없지 않다.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수사에서부터, 침체된 자본주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까지 여러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인간 삶의 본래적 의미와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정의로운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호적 장치들을 대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침체된

그러니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능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는 같은 행복을 누려야 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실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시장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본주의를 부추김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기본소득은 인류 자체의 존속을 넘어 지구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생명의 지속가
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성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인간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
나님의 피조세계인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에덴이라는 낙원을 관리하는 존
재였다. 그곳에 신도 함께 했다. 하지만 인간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실낙원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되어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탐욕은 실낙원하게 만들었으니 그 낙원을 다시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